



보도자료

2025. 5. 23(금)

고상진 빛의혁명 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약자의 든든한 방패, 희망의 등불 되어줄 이재명 후보 지지”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전.현 전국총학생회장단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생과 전.현 전국총학생회장단이 23일 오후1시30분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손현례 전국총동문회장을 비롯한 20명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역경을 반추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가난 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학력의 벽을 넘어 변호사가 되었다”면서
 - “그러한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은 그를 약자의 든든한 방패이자 희망의 등불로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 (그렇기 때문에)“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스스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낸 이 후보야말로 수많은 ‘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일터와 배움터를 오가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방송대 학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강력한 리더십과 서민을 향한 진심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 참여자 일동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와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빛의혁명 시민본부 성준후 상근본부장은 “저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85만 동문을 대표한 제27대 전국총동문회장 출신”이라고 밝히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교류, 지원했던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고 회상하며, “후보 본인이 흙수저의 아픔을 알기에 어려운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화답했다.

※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김종덕 고문,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손현례 전국총동문회장, 김대진 위원장, 이대성 위원장, 김남철 27대 상임부회장, 한형교 상임부회장, 정영주 감사, 이은주 부위원장, 김창진 위원장, 장정남 27대 감사, 권선화 경기지역, 안수병 부위원장, 이영숙 국장, 이순덕 부회장, 이현범 서울총학생회장, 문영희 생활과학부회장, 박강용 서울총학 수석부회장, 유대식 상임부회장, 노영민 서울총학 부회장

붙임 : 지지선언문 전문 및 사진



더불어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전.현 전국총학생회장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불공정한 출발선과 끝없는 좌절 속에서도 오롯이 자신
의 힘으로 일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한 지
도자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검정
고시로 학력의 벽을 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은 그를 약자의 든든한 방패이자 희망의 등불로 만들었
습니다. 그는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
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미래
를 개척해나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 하나로 고된 하루를 버텨내는 그들의 절
박함을 헤아리며, 물심양면으로 교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
다. 이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자신이 스스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을'들의 희망 사다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터와 배움터를 오가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방송대 학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강력한 리더십과 서민을 향한 진심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흙수저의 아픔을 알기에,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되어줄 이재명!
배움의 열정을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이재명!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국민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흔들림 없이 지지하며, 그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립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전·현직 총학생회장] 일동